



직지



청남대 · 부산 · 파주 · 하동에서 직지체험행사 연이어 개최

인협 · 청주시 · 고인쇄박물관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과 고인쇄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시회가 청남대와 부산벙스코 대한민국축제박람회, 파주 어린이책잔치, 하동군 야생화문화축제 장에서 잇따라 개최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시, 청주시고인쇄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체험행사에는 어린이 달을 맞아 유치원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전용 별장이었던 청남대 개방을 기념하여 치뤄진 행사에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지난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청남대 잔디광장에서 방문

객들을 대상으로 직지심체요절 체험행사와 찬란했던 고인쇄문화를 홍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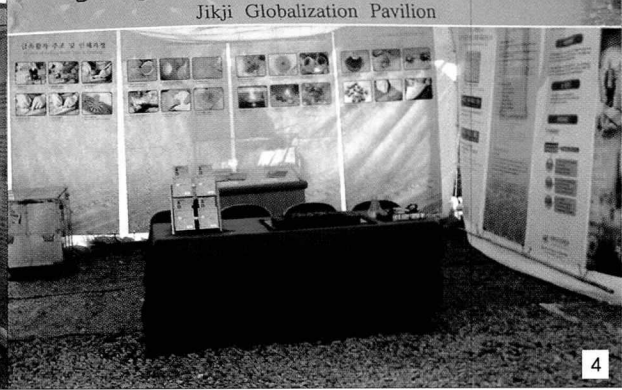
1980년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대통령이 주변 환경이 빼어나다는 의견에 따라 1983년 6월 착공, 6개월만인 12월에 완공된 후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던 청남대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5월 2일부터 6일까지 부산벙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는 청주시직지세계화추진단과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공동으로 8부스 규모의 대형전시관에 직지체



Jikji Globalization Pavilion

직지 세계화 홍보관
Jikji Globalization Pavilion



1 청남대 2 부산 벡스코 3 파주어린이책잔치 4 하동 야생차 축제에서 개최된 직지 및 고인쇄 특별전 모습

2
3
4

1

협관을 꾸며 직지와 청주, 고인쇄문화를 홍보했다.

5월 4일부터 13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개최된 어린이책잔치에 고인쇄박물관과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역시 공동으로 체험관을 마련,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지심체요절 체험행사와 찬란했던 고인쇄문화를 홍보했다. 이번 어린이책잔치에는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훈민정

음과 직지체험을 하며 즐거워했다.

5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경남 하동군에서 개최된 야생차축제에 청주시직지세계화추진단과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직지체험관을 꾸며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았다. ☺